

마음이 제 길 들어서면 정진은 저절로 따라와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㉔ 용마를 얻은 삼장법사 일행

현장법사 모시고 험한 여정 헤치고 사반산 응수간이라는 곳에 도착했네. 뱀이 파리를 탄 산(蛇盤山)속, 매가 날아 넘기를 근심하는 산골 깊은 물(鷹愁澗)이라.

잠시 말을 내려 팍 식히고 쉬는데 용 한 마리 나타나 현장법사를 채가려 한다. 놀래 손오공 현장법사만 안고 피하니 용은 현장법사 대신 말을 안장 채 꿀꺽~큰 일이 났다.

그 험하고 먼 길을 탈것도 없이 어찌 간단 말이나. 분기가 치만 손오공, 온 산골 물 뒤집으며 범인 수색, 견디지 못한 용 뛰쳐나와 손오공과 드잡이질... 그렇지만 하늘을 뒤덮은 손오공을 당할 길 있다. 꼬리말고 달아나 꼭꼭 숨어라!

이러니 수가 없다. 더더욱 화가 치민 손오공~사방의 토지신들 호출하여 다투었다.

토지신들 여기에 용이 있게 된 사유를 아란다. 관세음보살님이 용을 풀어놓았다고. 경 가지러 갈 사람을 도울 용이라고. 결국 관세음보살님께 사자가 파견되고 보살님께서 달려오신다.

보살님 만만 손오공 한바탕 화풀이 푸네. 어찌하여 대자대비 화신인 당신이 못된 사기를 쳐서 내 머리에 쇠 테두리를 씌워 괴롭히느냐. 보살님이야 할 말씀 남친다.

이미 약자가 된 손오공이 이길 길도 없다. 결국 말 문제로 돌아가니 보살님이 용을 불러낸다. 결국 원인은 용이 현장법사 일행을 몰라본 탓이라 몰랐다는데 어쩔 것인가? 본디 용의 임무는 현장법사 태우고 가는 말이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던 것. 관세음보살 신통력을 부리신다.

짜잔~용님이 말님이 되셨으니 정말로 명실상부한 용마(龍馬)로다. 어허~ 경사 다행.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된다더니 서역 먼 길 갈 튼튼한 용마를 구하였구나. 대략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지.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고 들어보셨나? 마음을 원승이라 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뜻은 말과 같다고.

마음 원승이 제 길로 들어섰으니 그 다음 올바른 뜻이 서기 마련이지. 여기서 용마를 얻었다 함은 인도를 향해 길을 가지러 목목히, 변하지 않고, 꾸준히 길을 가는 바른 뜻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머리에 금테두리 씌워진 손오공, 이제 땡개치고 달아날 길은 막혔네요, 우리 걱정도 덜었네요. 서유기 이야기하면서 손오공 성질 피우고 달아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야기가 끝나 버리잖아요? 하하, 아무튼 이제 인도까지 가는 것은 틀림없으니, 맘 놓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새롭게 출발한 현장법사와 손오공이 사반산 응수간이란 곳에 이르렀네요. 앞에 설명한대로 뱀이 파리를 탄 산, 매가 근심하는 산골 깊은 물이라는 뜻이요, 왜 매가 근심하는가는 설명이 필요하군요. 물이 하도 많아 자기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자기 짝이라

고 착각하여 물로 뛰어든다네요. 그러나 걱정이 될 만하군요. 인도로 가는 길의 험한 자연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그 험한 여정 속에 이렇게 맑은 물을 만나기도 하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말이죠.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분부 받고 중국으로 오던 길에, 죄지어 죽을 운명에 처한 용을 구해 풀어놓았다는 이야기 했었죠? 바로 여기가 거기예요. 용이 응수간에 숨어 살고 있었던 거죠. 용이라고 해서 볼 수 있나요? 굽주리면 먹어야 하고, 지나가는 짐승들 잡아먹고 살 수 밖에요. 그러던 참에 현장법사 일행이 도착하였으니, 이거 원 댁이야 하고 달려들 수밖에요. 원래 용은 맑은 좋아하던가요? 백마강의 전설에 그런 이야기

‘말(馬)’은 바른 정진·뜻 의미

깨달음 지향하는 마음과 함께해

“초발심시변정각의 대목 떠올려야”

기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손오공이 환갑히 현장법사 모시고 피하는 바람에 큰 재앙은 면했지만, 말은 용님께서 꼭꼭해버리셨네요.

정말 큰 일이 난거죠. 말이라는 말 것 없이 현장법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곤란한 상황에 현장법사가 은근히 손오공 염장을 지르시네요. 넌 하늘을 뒤집어엿었다더니, 말 도둑 하나도 어찌 못한단 말이나!

자존심에 상처까지 받은 손오공, 응수간을 온통 뒤집어엿어 버릴 기세네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물을 뒤집어 놓으니 용도 화가 나서 달려들지요. 그런데 손오공이 어떤 인물이에요? 아니 원물(猿物)이에요? 하늘의 난다하는 신장들도 당하지 못한 존재지요. 용이 신통력이 제법 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리가요. 그래서 겁먹고 도망가서는, 아예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작전으로 나가네요. 이 작전에는 정말 묘수가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고 숨는데는, 그 몇 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더욱 화가 난 손오공이 토지신들을 집합시키네요. 여의봉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도대체 저 용의 정체가 뭐며, 어찌하여 이곳에 용이 있게 된 건지를 물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용이 관세음보살께서 풀어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도로 경 가지러 갈 사람 도우미로 예정된 것이라네요. 더더욱 속이 뒤집힐 이야기지요. 그런 녀석이 말을 잡아먹었으니 말이지요. 결국 관세음보살님께 달려가야 하는데, 현장법사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여 곤란해 하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께서 은밀히 현장법사 보

호를 위해 파견해 두었던 금두계체라는 신이 나서서 관세음보살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급하게 달려오시죠.

관세음보살 만난 손오공, 할 말이 많습디다. 손오공 생각엔 금테두리 머리에 두른 바람에 꼼짝 못하게 된 것은 일종의 사기라 여겨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지는 거죠? 대자대비의 화신이라는 당신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보살의 변명, 아니 응수를 들어볼까요? 대략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원승이야! 너를 오행산 아래서 꺼내 준 것이 누구냐? 그리고 당나라 성승을 도와 경을 가지러 가게 한 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야. 네가 요괴를 벗어나 올바른 길로 접어들게 만들도록 한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지.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면 따를 줄 알아야하는데, 너는 전혀 그 성승을 버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대로 두면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라도 씌우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정도로 돌아오지 못할게다. 그러니 그 쇠테두리 쓴 것은 네가 불러들인 네 과보요네 팔자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그 덕분이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니 그거야말로 너의 큰 복이 아니냐? 그렇게 알아라!”

손오공? 할 말 없음? 그렇지가 않겠지요.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수긍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걸 아니야. 사기로 이런 걸 씌우는 건 아무리 날 위해서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 공시령 궁시령...” 이런 말들이 입속에 맴돌 겁니다. 하하. 그렇지만 이미 금테두리 써버렸으니 어쩔대요? 이미 칼자루는 상대방으로 넘어 갔거든요? 이런

때는 할 말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정도는 손오공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도 마음 원승이가 적절한 통제를 받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서도 큰 복입니다. 우리 모두 부러워해야 할 큰 복입니다! 우리들 통제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든요. 비록 강제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그 고통 받았다고 줄줄이 나설 것 같은데요. “자유로운 것만이 복이 아니지요. 그것을 포기하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포기 할래요!”

어?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되겠군요. “그래도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겠다. 내 선택이 아닌 강제에 의한 결과가 좀 괴롭다고 하여 쉽게 내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손오공의 금테두리는 단순한 자유의지의 포기 아니라는 점이 이 경우와는 다르지요. 현장법사의 뜻에 부응하여, 불보살님이 가피를 내려 마음에 일종의 제약을 가한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런 점에서 손오공이 주문 외우면 조여드는 금테두리 머리에 쓴 것은 역시 큰 복이라 할 수 있겠네요.

결국 관세음보살에 대한 손오공의 항의는 완전히 무효! 하하, 당연한 결과지요. 이야기는 결국 말 잡아먹은 용으로 돌아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통력으로 용을 말로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한 용마가 나옵니다. 훌륭한 말을 용마라고 하는데, 이런 정말 용이 변한 말이니깐요. 그런데 이 용마를 얻는 이야기는 서유기 작자가 짚아놓는 회심의 숨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원승이에 비유한다면 뜻은 말에 비유됩니다. 어

디로인지 달려 나가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하여 의마(意馬)라고 합니다. 합해서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마를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뜻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어디로 방향도 정하지 않고 달려 나가던 뜻이 어떤 방향성을 지닌 뜻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한다 할까요? 이전의 뜻과는 격이 다른 뜻이, 정말로 깨달음을 지향하는 높고도 큰 뜻이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마지요. 평범한 말과는 다른 말, 용이 변해서 된 말이지요! 이제 현장법사는 그 용마를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꾸준히 나가는, 물러서지 않는 큰 뜻을 말로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손오공이라는 마음이 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올바른 뜻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근본이 되는 큰일을 마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꾸준히 나가는 것일 뿐이요, 그것은 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것은 본디 실체가 없는 것이니... 여기서 이미 일은 마쳐진 것이라고나 할까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 처음 마음을 내는 때가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라!’

그래서 그러면 서유기에는 이 대목에 생동맞게 다음과 같은 찬탄이 붙어있네요.

“진여는 피안에 오르고, 불성을 깨달아 영산에 이르는구나”
이제 나머지 정신적인 요소인 탐욕-계율의 상징인 저팔계와 성냄-집중된 마음의 상징인 사오정을 만나지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둘을 만나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네요. 기대하시라~개복방두!



그림·최주현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on.com 대표 청정행 투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찌리티오 7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한시출발

선불 선량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찌리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티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클루베나-스라바스티-산키리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클롬보-이누라디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일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6일
클롬보-이누라디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일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클롬보-이누라디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일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클롬보-이누라디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미탈레-캔디-클롬보-몽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쉬라바스티-클루베나-카트만두-니가르코트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양드록초-간체-시가체

티베트 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정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카투만두-니가르코트

동티베트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력)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펜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